

# 고은 불교대하소설

## 추억

**얼** 마친 무욕도에 나타난 뜻밖의 영무새는 그 뒤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한 쌍도 아닌 수컷 한마리였다.

그 흠이 영무새가 사람의 말을 남겨 놓고 다시 육지 쪽으로 떠났던 것이다. 도무지 생사의 일 같지 않았다.

우녀는 그때 그 새의 직전(直前) 전생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이 무욕도와 인연이 있는 어떤 생명이었을까? 수행하던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낸 다른 종류의 중생이었을까? 아니 그 새의 유창한 음악적인 말투도 보아 직전은 아니지만 전전생의 시인 입춘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입춘의 추심이었던 김봉우, 그러니까 불이신님과는 어떤 관계일까?

그 영무새가 전혀 기억에도 없었던 지를 다시 섬의 아래쪽 높은 소나무의 가지에 숨은듯이 앉아있는 것이었다. 날이 저물었다.

그런 어둠 속에서 우녀는 그 새의 꼬리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아니!" 하고 그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져 있었다.

바다는 원일로 잠잠하였다. 마치 야당수(夜堂水)인 것처럼.

물고기가 이미 용이 되어 하늘에 오른 뒤의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밤의 물기슭이 그것이거나 그것은 진여가 없는 연구(眞句)의 걸림돌에 집착함을 비유하기도 하다.

그런 어두운 바다의 기나긴 고요를 그는 밤새도록 내린 푸짐한 이슬에도 젖을 줄 모르는 것만을 이따금씩 지켜세워 바람을 들이고 있었다.

영무새의 부리는 열리지 않았다. 수채 병어리라도 되었던 말인가.

그러나 그 새는 고즈넉이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 인간, 인간세계, 인간이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까지가 인간 이외의 것인가.

아마도 그런 것을 마치 먹이를 먹고 난 뒤 충분히 소화시키는 내장 속의 과정과 그 새의 마음은 인간에 대한 어떤 연민에 차 있으면서 굳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 상 부른다.

저 육계, 6천 도리천의 재석천 궁전 위

에 천 하늘 그물인 인다라망(因陀羅網)이라도 내려와 그런 어둠 속의 조용한 영무새소리를 뒤덮을 것인가. 그것이 이슬이겠는가.

"아무튼 이 섬에 나 혼자 있지 않게 됐으니... 저 새도 내 도반이지"라고 우녀는 입안에 덜 씹은 것을 씹는 것 같은 중얼거림을 담고 그의 바위굴로 들어갔다.

우녀는 밭 입정(人定)을 하지 않고 열구리를 밭으로 누워서 곧 잠들었다. 꿈도 들어오는 일이 없다.



129

넓은 바다 나무로 막 띄워주니 밤과도 떠다니는 눈먼 거북 만나리 (向海濱下浮木 夜渡相共接萬載)

이런 우녀의 꿈과는 달리 밤새도록 영무새는 인간에 대한 생각으로 눈을 감지 않고 있었다.

그 새는 저흔자물 속의 여러 내장이 점점 비어감에 따라 출몰해지는 동안을 인간에 대한 생각으로 매었다.

"흐음... 인간이란 속속은 인간을 잘 안다고 장담하겠지. 아니 삼부주에서만 사는 인간은 삼부주 인간에만 낯설지 않

그러나 하연달이 빈 하늘에 남아서 그런 새 한 마리의 인간에 대한 연민과 경멸을 품고 있었다. 달빛이아말로 그런 생각처럼 하연없었다.

바로 그 무렵 천상계에서 다시 머물러 있는 만화는 그의 동료 가운데서 우화주 인간계에서 올라온, 말소리가 항상 황소 울음처럼 우렁찬 천인이 있었는데 그의 천인 생명이 다할 무렵이 되어 우울한 날을 보내는 것에 등장하고 있었다.

그는 동료의 탄식을 들어주고 있는 것 밖에는 다른 도움은 줄 수 없었다.

"... 아 이제 내 천인노릇은 다하였도다. 이제 천상을 떠나 어디로 가서 이 한

"나는 다음에 도리천의 여섯살, 아마천의 일곱살, 도솔천 여덟살, 태화지재천 아홉살의 아이로 태어나서 빨리 자라나 아마천에서의 포옹 한번으로 무지막지만 음락을 누리고 싶어, 아니 서로 웃음만 나누어도 음락의 필경에 도달하는 곳에 태어나고 싶어,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그렇게 되는 하늘도 있구나... 그런 곳 두루 두루 태어나고 싶어..."

마침내 만화는 동료의 마지막 오열을 남긴 채 그동안 살던 하늘을 떠나버린 사실을 다음날 알게 되었다. 동료가 있던 그 즐거움 가득한 방에는 안개 비슷한 것이 있다가 그것마저 없어져 텅 비었다.

## 보살이 된 합두와 불이의 대화는 청정하고 영롱한 음악 같았다

### "아니 이 분이 누구신가... 무전보살님"

목숨 태어날 것인가. 태어나지 말라고 누가 말하였던가. 아무리 태어나지 않으려 해도 태어나는 일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늘...

"그렇게도 나를 따르던 아리따운 천녀들은 이제 나를 시든 잡초처럼 내버리는구나... 아 그렇게도 행복했던 이 선전성(善現城) 자체가 나에게는 없어지는 그림자여 지나지 않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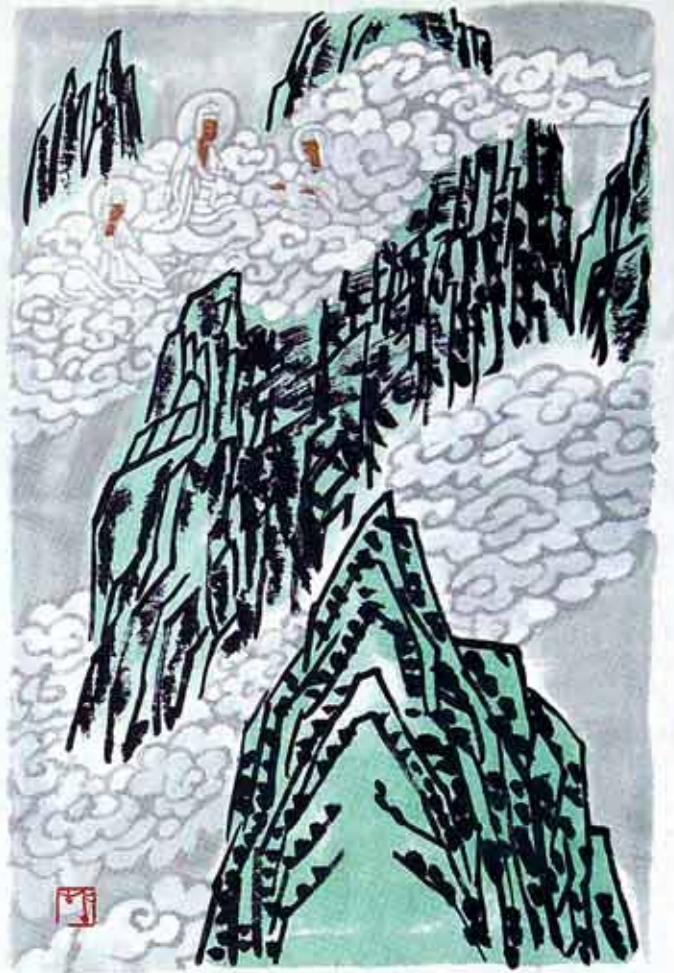
"저 잡림원(雜林苑)의 황력이 넘치는 잔치에 이제는 내가 끼어들 수도 없는 신세가 되었고 그곳에서 실컷 마실 수 있는 내 종류의 천상 갈로(天香酒)도 이제 내 입에서 멀어졌구나."

"천상의 다섯가지 음악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도 남의 것이 되어 이미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구나..."

바로 그 무렵 저 삼부주 동황의 암굴에 있던 불이와 합두는 어느덧 그들의 오랜 수행이 쌓은 공력으로 보살을 이루어 불이보살 합두보살로 여섯 세계의 중생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나타나 그 중생들의 괴로움 속에 함께 있었다.

그들은 반드시 풀로 짖어낸 것은 아니지만 자주 만나면서 중생들을 위한 위로와 구제에 대하여 오래동안 대화를 나눌 때도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실로 아름다웠다. 그 대화의 내용이 듣기에 따라 달라진 것이 아님에도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각각의 보살행에 있다가 함께 만나는 일 자체가 아름다운 음악인지도 모른다. 밤새도록 떠 있는 달빛이 지상의 별들과 어우



## 세 보살의 마음속에 전생의 무욕도가 아침해 처럼 찬란하게...

고 있었지."

"... 삼부주 인간 말고 승진주 우화주 구로주 인간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인간세계의 여러 종류도 끝내는 그 인간계의 생사를 거쳐 하늘이나 땅속의 지옥과 아수리계 축생계 아귀계 등의 중생으로 태어나 그 세상의 업(業)으로부터 조금도 피할 수 없게 되었지..."

"그런데 삼부주 인간만 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진실을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인간계가 흑인종 황인종 홍인종 백인종 따위 피부색 분류하고도 수많은 인간의 종류로 나뉘어져 그것 자체가 이미 인간으로서의 삼라만상이거늘... 어찌 안다 하겠는가. 어디 그것만인가. 인간의 내면 깊숙히 박혀있는 여러 현상들이나 앞으로 있게 될 현상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이런 자문자답도 할 수 없는 독백의 생각을 그 영무새는 밤새도록 이어가고 있었다.

"아 재발덕분 지옥에나 떨어지지구나. 이 천상을 떠날 바에는 차라리 쿠간지옥에 떨어져 이제까지 누린 즐거움과는 전혀 반대인 고통을 괴로움 속에 갇혀버리자구나. 아아... 아아..."

만화는 그 동료의 가지막에서 그 자신의 마지막을 보고 있었다. 그도 언젠가는 지금 천상을 다함으로써 어디론가 가야 하는 동료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천인의 다섯가지 최망(五衰亡)에 의한 시드는 꼴과 더러운 몸, 빛을 잃어버리는 일 따위를 치루어내다가 그 하늘나라를 끝장내야 할 것이 아닌가.

그 동료는 유난히 천상계의 유정에 깊이 빠져 있었다. 천상계에는 환희원이라는 유희장이 있어 그곳에서 천인 남녀들은 욕망의 불을 잠재우지 못하는 환희로 세월을 보내는데 바로 거기에서 일장씩던 자가 바로 그 동료였다.

그는 늘 말하였다.

러저 합두하는 그 청정한 음악이거나 대낮의 눈부신 햇빛에 빛나는 푸른 나무잎 새들이 바람부는 날 서로 부딪쳐 내는 그런 영롱한 음악이기도 하였다.

"합두보살이여... 저는 과거 구원결전의 연등불계 석가모니부처님 전신인 어린 유종보살로서 연꽃 일곱송이를 바친 일을 따르고 합니다."

"불이보살이여... 저도 그런 유종보살이 고자 합니다. 연등불계서 갑자기 오신다는 말을 듣고 진흙길에 그 자신의 몸을 앞뒤로 밟고 지나가시게 하셨지요... 아니 그런 유종보살이 소승장난하던 깨어진 기왓장에 모래 한 줌을 담아 연등불계 바쳤더니 연등불계서 지극히 기뻐하시며 잠자려는 큰 서원을 세운 사바세계의 주재물이 되었구나 하고 수기(授記)하신 적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 수기를 받고 싶습니다."

"합두보살이여... 제가 보살이 가지고 노시는 기왓장이 되고 싶습니다."

"불이보살이여, 제가 그 기왓장에 담긴 모래 한 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동화와도 같은 경앙을 나누며 그들은 그동안 괴로움 속의 중생과 함께 지낸 일이나 그런 중생들의 갖가지 괴로움에 대한 것을 다정하게 나누었다.

"일제 부처님과 보살님이 그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타락 세상에 내려가 여러가지 방편을 보이며 진리를 알려주는 일이나 우리에게만은 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비를 위해서 풀더미로 떨어지는 일(慈悲落草)이 얼마나 어려운 경계이겠습니까."

이렇듯이 겸양하는 그들의 대화에 뜻밖이 깨어드는 다른 보살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무전보살이었다. 무전도 어느덧 무전보살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무욕도의 삶을 마친 뒤 바다 밑 고기의 내장에 날아들은 벌레가 되었다

가 고기 밖으로 나와 자라가 되었다가 무엇이 되었다가를 되풀이하는 그 중생노릇의 선업들이 쌓이고 쌓여 이룩고 보살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두 보살께서 그러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더니 이제는 문 밖의 은렁나무 두 그루인말을 주고 받으시는구료."

"아니! 이분이 누구신가? 무전보살님! 아니! 무전보살님!"

"어머나 어머나 무전보살님! 이 얼마만이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들 세 보살의 추억에 의해서 지난 전생의 무욕도가 방금 들숨에서 얼굴을 씻고 나온 아침처럼 찬란하게 떠올랐다. 세 보살의 마음 속에 동시여...

그림·조향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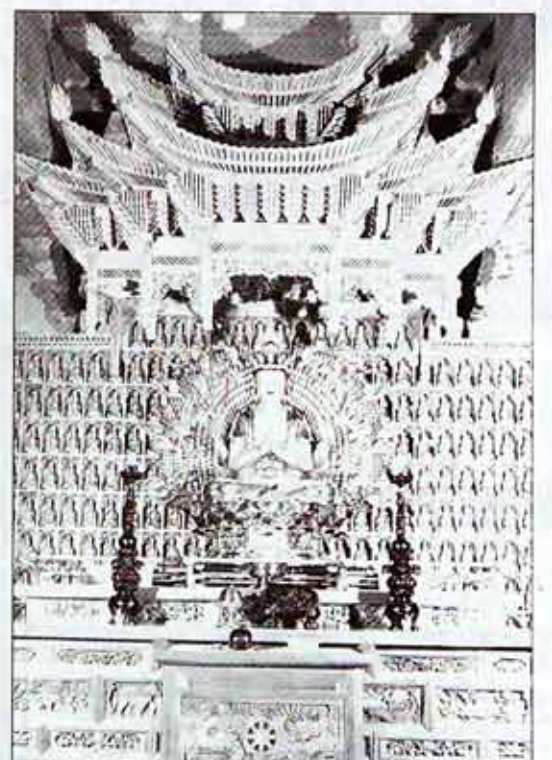


##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상, 천불조상, 목련화, 개공불사, 천불감시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언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 불사의전당 불교 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대표 이진형 합장